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음 8월 6일)

제16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아·태 지방정부 화합을 위해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0개국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흥윤식 행사부장관과 원희룡 UCLA ASPAC회장,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올도내 쌀 작황 '풍년' ... 가격 폭락 우려

재고량 175만톤 · 생산량 증가로 재고 급증 우려
도, 미곡처리장 대표자들과 가격 안정화 논의
"필요 물량 외 초과량 격리 · 정부가 선제대응해야"

올해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도는 지난 1일 RPC(미곡종합처리장) 대표자들과 회의를 갖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도내 농협RPC와 민간RPC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확기 보관여숙 부족 및 쌀값 하락 예상에 따른 방지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조생종 벼 산지 쌀값 급락 추세가 수확기 중만생종 쌀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커진 탓이다. 이들은 현재 지난해 산 벼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데다 조생종 벼 재배면적 증가와 예년보다 빠른 출하로 시장에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말 기준 전북을 포함한 전

국 쌀 재고량은 175만톤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 143만 톤보다 많다. 수요도 줄고 2년 연속 풍년으로 공급도 많았기 때문인데 올해 역시 유례없는 '대풍'을 맞아 쌀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 재고량 역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조생종 벼 가격폭락이 심상치 않다. 실제 지난달 말 조생종 벼는 1포대(40kg당) 4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평균 5만2,000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1만2,000원 정도 하락된 것이다. 수확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져 4만원도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1년 (80kg

기준) 통일벼는 9만5,700원, 일반벼는 11만3,700원이었다. 지금 쌀값은 80kg으로 환산해보면 11만5,500원이다. 쌀값이 25년 전인 1991년으로 돌아간 셈이다. 줄어든 쌀 소비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국민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4g이다. 밥 한 공기 쌀은 100~120g으로, 국민 1명이 하루에 공기밥 두 그릇도 채 먹지 않는 셈이다. 1985년 국민 1인당 연간 128.1kg의 쌀을 소비했지만 30년 만인 지난해 62.9kg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소비량 조사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역시 62.9kg으로 전년보다 3.4% 감소했다. 이는 쌀 20kg이 4만원일 경우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345원으로 밥 한 공기 가격(200원)이 자판기 커피 한잔 값인 400원 보다 낮은 셈이다. 쌀 시장에서 이 같은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RPC 대표자들은 "쌀 시장에서 필요

로 하는 물량 이외 초과량(2015년산 재고물량과 2016년산 초과물량)은 반드시 격리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 추후에 벼 가격이 포대(40kg)당 3만원선 이하로 하락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관여숙 확보는 2010년도에 2009년 산을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위임해 민간창고로 격리시켜 여숙 부족을 해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만일 여숙이 부족할 경우 이 사례를 적용할 경우 추가 여숙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해 2015년산 벼와 올해 쌀 생산량 발표시 수요량보다 초과되는 물량은 조기에 쌀 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했다"면서 "향후 쌀값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메일 INDEX
11면 서남대 정상화 성명서 발표

모래 위에서 펼쳐지는 싸움소들의 한판 대결

원주소싸움대회, 8일부터

원주소싸움대회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원주군은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원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화산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기량이 우수한 전국의 싸움소 150여두가 출전해 백두급(771kg 이상), 한강급(671~770kg), 태백급(600~670kg) 조를 나누고, 조별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소를 가리게 된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 4~5월 경북지역에서 진행된 각종 소싸움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뽐낸 원주 싸움소가 많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둘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체급별 우승 물망에 오르는 소를 보면 백두급에서는 백두(정음, 김근우), 누리(김해, 박희준), 미소(대구, 서갑용) 한강급



통일과 백머리(청도, 최진호), 태백급에서는 별이(대구, 한종희)라는 쟁쟁한 실력을 자랑하는 소들이 우승 트로피와 상금을 목심내고 있다. 원주에서 출전하는 소중에서는 백두급에 짝꿍(봉동, 박운배)과 싸쓰리와 격비(고산, 송기수), 완주(고산, 김영민) 소들이 안방에서 싸운다는 이점을 가지고 우승을 위해 칼을 갈고 있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 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소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기라성 같은 싸움소들이 매 경기마다 스틸과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이종복 기자

도, 다양한 전시 공연 마련... 추석명절을 전북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경기전 등 8개 시설 무료 입장
보석박물관 입장료 '반값'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과 도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맞아 '문화가 있는 한가위를 위해' 도내 문화관광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할 계획이다. 추석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16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해 전시·공연과 민속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각종 민속놀이와 전통체험 및 공연 등이 도내 전주전통문화관, 남원 사랑의광장,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29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은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성객의 지역관광 유도를 위해 경기전과 고인돌박물관, 강천산군립공원, 광한투원 등 8개 시설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보석박물관과 청자박물관 등 4개소에서는 30~50% 할인된 가격으로 전북을 찾는 손님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도립미술관에서는 아시아 14개국 36명의 청년미술가들이 참가하는 '아시아현대미술전 2016(ASIA YOUNG 36전)'과 예초백만들기, 악세서리 만들기 체험 및 무료영화도 상영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개방·운영되는 문화관광체육시설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인태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맛과 멋의 고향 전북에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찾아 뜻깊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초 4년연속 대표축제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2016. 9. 29(목) ~ 10. 3(월) 5일간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벽골제 무료·유료(5천원/1대) 주차장 운영
시내권에서 전용차선을 이용한 셔틀버스 운영
오감만족, 올해의 이슈 프로그램

- 한민족의 일! 농악기획공연
- 글로벌존
- 김제의 유산! 날아라 정평구 비거
- 김제 벽골제 야행
- 모락모락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

주관 :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http://festival.gimje.go.kr)